

# 해수찜·글램핑·한옥...함평군, 힐링·해양치유 '눈길'

### 내달 중순 돌머리해양치유센터 운영...해수욕장도 개장 해수풀장·갯벌 체험 등 즐길거리 다채...낙조 등도 일품

함평군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해양치유 관광지를 추천한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돌머리해양치유(해수찜)센터'를 운영한다.

해수찜은 천연해수와 직접 닿은 유황석을 활용, 뜨거운 열기로 땀을 빼며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힐링의 명소다.

올해 군은 자체적으로 돌머리해양치유센터를 본격 운영하면서 보다 많은 이들이 힐링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읍 석성리에 들어선 '돌머리해양치유센터'는 연면적 1천12㎡에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해수찜, 해수탕, 샤워실, 음식점,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여름철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해수욕

명소인 '돌머리해수욕장'도 오는 7월14일부터 8월15일까지 운영한다.

육지 끝이 바위로 돼 있어 '돌머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돌머리해수욕장은 1km의 은빛 백사장과 넓은 소나무숲이 어우러져 천혜의 절경을 자랑한다.

또 목재 데크로 조성된 길이 405m의 갯벌탐방로가 있어 바닷물이 빠지면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에서 게, 조개 등이 살아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돌머리해수욕장에서 해 질 무렵 만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낙조도 일품이다. 서해안의 황홀한 낙조를 카메라 앵글에 담기 위해 많은 사진작가들이 몰려드는 명소이기도 하다.

여름철 피서객들을 위한 인공해수풀장과 어린이풀장도 올해 시설을 개선해 재개장한다. 워터 슬라이드 등 남녀노



함평군이 7월 중순부터 돌머리해양치유센터를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돌머리해수욕장(사진 왼쪽)과 돌머리 글램핑장(오른쪽) 등 힐링 명소를 소개했다.



함평군 제공

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는 글램핑 5개동, 카라반 10개동, 갯벌체험 등을 마치고 쉬어갈 수 있는 초가원두막 2개가 조성돼 있다. 갯벌 체험 등에 필요한

장화, 호미 등은 석두어촌계에서 대여할 수 있다.

돌머리해수욕장 인근 주요 한옥마을은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한껏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총 30여동의 한옥 민박이 운영 중이며, 뛰어난 경관과 편리한 기반시설,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근 지역민들

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한옥마을 입구에서 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면 돌머리해수욕장의 너른 바다를 마주할 수 있으며, 함평만 낙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현재 총 50동의 한옥 중 30여동이 한옥 민박으로 운영되고 있어 뛰어난 경관과 편리한 기반 시설, 뛰어난 접근성

으로 인근 도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군수는 "일상에 지친 모든 분들이 천혜의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잠깐의 여유를 누리길 바란다"며 "많은 이들이 힐링 명소로 함평을 찾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김영수기자



해남군이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해남형 ESG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균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남군 제공>

## “깨끗·유능한 군정, 해남형 ESG 완성할 것”

### 명현관 군수, 민선 8기 1주년 간담회...‘재정집행평가 1위’ 성과

명현관 해남군수는 “깨끗하고 유능한 군정, ESG 경영을 완성해 해남 발전의 백년대계를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개최,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군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명 군수는 “민선 8기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해남이 하면 대한민국 시적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졌다”며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지난 1년이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5년 연속 달성, 전남도내 유일 5년 연속 청렴도 2등급 달성에 이어 재정집행 평가 전국 1위 등 각종 평가 지수에서 최상위권을 지키며 깨끗하고 유능한 군정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ESG 경영을 군정에 도입해 ‘해남형 ESG 윤리 경영’을 민선 8기 군정의 주요 운영 방침으로 설정하고, 청정해남(E), 함께 하는 안전사회(S), 신뢰행정 구축(G)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명 군수는 해남형 ESG를 ‘이런(E) 사회로(S) 가자(G)’라는 의미를 담아 해남군 장기발전 동력으로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 진도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호응’

### 6천여만원 투입...임산부·신생아 등 건강 상담

진도군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선정돼 의료시설 기반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임신·출산 단계의 예방적 건강관리, 양육 지지 등 각 가정에 개별화 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진도군 보건소는 확보한 국비 등 6천여만원으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건강평가를 통해 기본 방문과 지속 방문군으로 분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도=박세권기자

## 강진 수국길축제 기간 먹깨비 주문 ‘5천원 할인’

강진군은 “오는 30일부터 7월2일까지 열리는 ‘강진군 수국길축제’와 연계해 ‘공공배달앱 먹깨비 5천원 즉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벤트에 따라 먹깨비에서 축제 기간 3일 동안 1만5천원 이상 배달 주문 또는 포장 시 5천원 할인쿠폰이 매일 제공된다.

가맹점에서 발행한 쿠폰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 가능하고 주말에는 배달비 3천원 할인쿠폰까지 가능해 최대 8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먹깨비는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결제가 가능해 상품권 구입 시 받는 10% 할인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강진=정영록기자

## 나주시, 시간당 최대 65mm 집중호우...피해 복구 총력

### 운병태 시장 “신속한 피해 복구·추가 피해 최소화”

나주시가 장마 초입부터 시간당 최대 65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27일 오후 9시부터 28일 오전 9시 해제 시까지 237.9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27일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 시간 동안 문평면에 최대 65mm, 노안면에 46mm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시에서는 27일 오후 9시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배수펌프장, 하천배수문, 도로관리 근무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또 한 시간 뒤 호우경보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이 가동되면서 부시장을 비롯한 20개 읍·면·동장과 전체 부서, 읍·면·동 비상근무 인력이 투입돼 상습 침수구역 현장 점검 및 실시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도로 침수, 낙뢰로 인한 정전 등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나주시청사 별관·본관 일부 건물, 봉황·다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정전으로 통신장비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도로 침수, 토사 유출, 잡목 부러짐 등 현장 접수 민원 15건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전체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운병태 시장은 “일시적인 장마 소강 상태지만 29·30일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신속한 피해 복구와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우려 지역, 재해 취약시설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저지대 상습 침수, 하천 범람에 대비한 사전 통제와 배수펌프장, 하천배수문, 도로관리 등 재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기자



## “완도 해산물 우수성, 해저 맥반석 기반암 등 성분서 비롯”

### ‘완도 해수 성분·해산물 영양학적 관계’ 최종 보고회

완도 해산물의 우수성은 해저 맥반석 기반암과 갯벌, 해수 성분의 영향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완도군은 “해양환경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최근 ‘완도지역 해수 성분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김정민 순천대학교 교수와 김태훈 전남대학교 교수가 완도지역 연안 해수의 화학적 성분(유기탄소, 용존 무기 영양염, 미량원소)을 분석, 해수와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 관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훈 교수는 완도의 해산물 양식장 주변 해수를 대상으로 계절별(총 4회) 영양염류와 미량금속 성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완도지역 해수중 유기물(유기탄소)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았다.

또 완도 해산물의 원소 함유량 분석 결과, 갯벌과 암석의 지화학적 영향으로 칼륨, 나트륨, 아연 함량이 높고 전복·바지락 채취 지역의 암석과 갯벌에는 칼륨과 나트륨, 철, 아연 등이 함유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역과 다시마를 비롯한 해조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돼 있고, 바지락과 꼬막은 철과 아연의 함량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완도 해역 대부분이 정화 작용이 우수한 맥반석으로 형성돼 청정한 바다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해조류 성분에 필수적인 영양염류를 많이 생성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완도 해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소비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 영광군, 우산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 내달 8일-8월13일 운영...군민 한해 입장 가능

영광군이 오는 7월8일 우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사진)을 개장한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어린이 물놀이장은 8월13일까지 운영하며 오전 10시-오후 5시 무료 개방된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광군민만 입장이 가능하므로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하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은 입장이 제한된다.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13세까지이며 만 5세 이하의 보호자를 동반 이용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

한 인터넷 사전 예약 70%와 현장 선착순 접수 30%로 입장 가능하며, 입장 인원은 오전, 오후 각각 200명씩 하루 400명이다.

/영광=김동규기자

